

말세의 징조: 동성연애

성경말씀: 창19:1-14

목사의 고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하는 자(행20:27)

미국: 거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 영국의 뒤를 이어 유대인과 성경 보존, 패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2010년 캘리포니아 주, 동성 결혼 허용 논의, 2012년 5월 9일 굿모닝 어메리카, 오바마 대통령; 동성 결혼 허용(민주당의 법 개정 절차), “저는 오랜 기간 주변 친구들과 이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생 배우자에게 충실하며 함께 자녀를 키우는 동성 커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1789-201년 223년 만 지난 2-30년, 미국 감리교 연회, 장로교 총회의 가장 큰 이슈: 동성연애 목사 인정
이미 동성연애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은 유럽,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백인 남성의 5%는 동성, 10-20%는 양성 연애, 나머지가 이성 연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롯의 때의 특징: 동성애의 만연으로 인한 갑작스런 멸망(눅17:28-30)

말세의 특징: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행위들이 극성을 부림: 인간의 존엄성, 결혼 제도, 인간 복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 결혼을 통해 아이들을 낳는다. 결혼의 왜곡, 인간 복제 시도
우리의 아이들 보호, 그리스도인들 보호를 위해 동성연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필요

하나님의 결혼 제도

창1:27, 남성과 여성, 창2:22-24 : 결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

인류의 역사는 한 마디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노아의 때, 창6: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불법 연합, 거인들 탄생, 옛 세상의 멸망

창19:30-38, 롯의 두 딸의 근친결혼, 모압과 암몬 족속의 출현

창34: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족속(히위 족속)에 의해 강간을 당함, 세겜의 가족 멸망

창38: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불법 연합, 그 당시의 매춘 제도

아브라함, 다윗에게서 보는 일부다처제,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쓰고 계신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창19)

1절: 두 천사, 천사는 항상 젊은 청년으로 나타남

2절: 그 당시의 악한 상황

4,5절: 소돔의 남자들이 물러둬(개역성경 같이 사람들이 아니라 남자들이이다). 동성애

7절: 악하게 행하지 말라. 동성애

8절: 이 사람들의 애욕이 너무나 크므로 심지어 이들을 달래기 위해 처녀 딸들을 주겠다고 함

9절: 동성애를 판단하지 말라. 너를 먼저 희생양으로 삼겠다.

10-11절: 문을 찾느라 힘들어하더라. 무서움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여전히 욕망을 이루려 함

12-13절: 하나님의 심판

14절: 불신 사위들의 대답, 말세의 징조 ★★★

23-25절: 소돔의 멸망, 소도미, 소도마이트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죄: 유6, 7절,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말세가 이렇게 된다.

동성애: 가나안,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그리스, 로마, 거의 대부분의 고대 국가의 특징

멸망의 징조: 동성애의 합법화, 만연화, 무감각

지금 전 세상의 문제: 동성애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선택적인 라이프스타일로 보는 것, 인권 보호
은 세상이 불법을 법으로 만들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전략: 법을 바꿈(단7:25).

사형제도: 범죄자의 인권(무고한 자들의 수난), 학생들의 인권(교사들의 수난)

동성애의 합법화(무고한 자들의 수난)

타락한 인류의 현 주소: 롬1:24-32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고전6)

9-11절: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9-10절).

좋은 소식: 이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에 의해 구출될 수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가 극명히 다르다: 고전 1:26-27

우리는 어떤가? ★★★

두 종류의 동성애자 9절: 여성화된 남자와(수동적으로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 동성애자(능동적)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복된 소식: 동성애자들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 ★★★

맥아더 목사의 경험담

한 남자가 죽게 되어 입원실에서 그를 부름.

에이즈와 암으로 피골이 상접하여 곧 죽게 될 운명, 병원 방문, 그 방에 한 남자가 있음

데이빗: 26년간 동성애자로 살았다.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다. 성경 학교 2년을 다녔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동성애자가 되었다. 에이즈로 죽게 되었다.

“목사님,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지금 보니 동성애는 또 다른 종류의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는가? 그의 명확한 복음 진술

진술이 끝난 뒤 “당신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가?”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뒤 5일 만에 죽었다.

섹스 파트너, 간호사, 에이즈 협회의 간병인도 동성연애자, 그 5일 동안 그는 이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동성애가 심각한 죄임을 알리고 죽었다.

말세의 징조

말세: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불법으로 대체하는 시대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만연한 시대(결혼제도와 인간복제)

성경 말씀: 동성애는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죄이다.

인권을 주장하는 자들의 견해: 동성애는 유전 문제이다. 삶의 선택과 자유의 문제이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이것을 통해 불법이 합법화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을 파멸로 이끈다. ★★★

동성애는 인종, 문화, 자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행위

이 모든 일의 결말은 무고한 사람들의 짐으로 다가온다.

한 명의 동성애자는 평균 500명의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다. 이 죄에 걸려들면 욕망이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간다.

동성애, 에이즈(아프리카), 병원비의 상승, 사회 보장 비용의 증대, 국민의 세금 증가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정부와 교육 기관이 조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6월은 동성애자들의 달

그 결과: 캘리포니아 주의 도산 위기

우리나라도 동성애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짐은 우리가 져야 한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다. ★★★

동성애자에게 누가 가장 친절할 사람일까? 커밍아웃을 환호하고 격려하는 무리들 아니면 죄를 죄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들

좋은 소식: 이 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우리 예수님이 이들의 죄악도 홀로 몸에 짊어지셨다.

이 은혜를 받으려면 스스로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

결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노아의 때, 롯의 때

결혼 제도와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때,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는 때

특히 동성애의 급증

이때에 아이들 잘 건사하고 우리 자신을 더러움 것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동성애자는 사랑하되 죄는 죄라고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예수님을 통해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